

### 터키,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대한 반응 및 향후 과제

김재우 차장  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터키 무역관  
국제무역 전공 박사

#### ■ 주요 내용

- 영국의 터키 국민들의 EU 가입 움직임에 대한 거부반응과 EU 탈퇴 결정 후 터키의 향후 정보가 예의주시 됨
- 최근 터키 대통령은 터키 국민들을 대상으로 “터키의 EU 가입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”고 발표
-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인한 터키의 대외 재정 건전성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



**KIEP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
TEL 044-414-1076 E-MAIL [emerics@kiep.go.kr](mailto:emerics@kiep.go.kr)  
<http://www.emerics.org/> <http://www.kiep.go.kr/>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## 1 이슈 현황

☒ 브렉시트 찬반 논쟁을 놓고 펼쳐진 영국의 터키 국민들의 EU 가입 움직임에 대한 거부반응과 EU 탈퇴 결정 후 터키의 향후 정보가 예의주시 됨.

- 터키는 최근 영국 캐머런 총리의 브렉시트(Brexit) 반대 지지표현 중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대한 강한 거부감 발언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음.
  - 영국 총리가 자국민의 브렉시트를 우려한 상황에서 “터키의 EU가입은 서기 3,000년이 되어서도 이루어지기 어렵다”라고 맹비난.
  - 이에 대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“그대들은 그대들의 길을 가라.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”으로 맞대응,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음.
- 유럽에서 터키의 EU가입 반대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서는 서구 유럽과는 다른 중동색이 강한 이질적인 문화, 이슬람 종교 확산 등을 거론하고 있음
  - 터키가 비록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세속주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, 인구의 절대다수가 이슬람이라는 점이 기독교 중심의 EU국가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으로 작용함.
  - 터키가 유럽국가 지위를 갖고 있는 부분은 군사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가 있으며, EU와는 1995년 관세동맹(Customs Union)을 체결
  -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터키는 8천여만 명의 인구, 세계 18위 경제규모(유럽 기준 6위), 젊은 노동력(노동인구 평균연령 30세) 등 EU에 가입 시 노동인구의 물밀듯한 유입 등 예상치 못한 규모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임
- 한편, 터키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80%는 EU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으며, 터키는 교역 의존성(50%)과 함께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EU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지속해 온 상태임.
  - 터키의 경제부총리 또한 “터키가 EU와 기존의 관세동맹을 넓혀 농업 및 서비스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관세동맹을 체결할 경우, 블록 내에서 3번째 무역국으로 성장 가능할 것”<sup>1)</sup>이라고 분석

1) Reuters, 2016.6.16, Despite Brexit noise and migrant woes, Turkey committed to EU ties

## 2 원인과 분석

☒ EU 가입에 대해 서두를 것 없는 터키, 최근 터키 대통령은 터키 국민들을 대상으로 “터키의 EU 가입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”고 발표.

- 터키의 2016년 1분기 GDP 경제성장률은 4.8%로 기록, 근래 들어 최대의 성과를 보이면서 EU 가입에 대한 절차는 지켜보자는 의견이 높아질 전망
  - 특히, 터키 정부는 중기경제개발계획에서 ‘16년 4.5%, ‘17년 5.0%, ‘18년 5.0% 등 다소 무리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하여 EU측으로부터의 러브콜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변모
  - 터키는 자국경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으로 글로벌 경제 불황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10개 분야 경제조치 계획을 결정, 내각 신임 후 시행예정(‘16.6.5 발표)

표 1. 주요 경제정책 내용

	내용	비고
글로벌 금리대처	터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처	통화정책
경제 조정협력	대통령(내각)과 터키 중앙은행의 공조 강화	재정정책
생산, 수출지원	생산 및 수출보조 등에 관한 포괄적 지원	수출지원책
외국투자자 보호	터키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	외국인투자촉진정책
노동자 지원	하청 근로자 위주로 연금, 퇴직금 등 복지	노동정책

자료 : 터키경제부, 경제조정 각료회의(Economy Coordination Council meeting)

- 한편, 터키 국민들의 EU국가 여행 비자면제 건은 향후에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, 사실상 7월 1일 부 시행은 불가능해짐
  - 터키 정부 측에서도 러시아 전투기 격추사건, 테러 등으로 인해 자국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입장에서 굳이 앞장서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
  - 이와는 별도로 EU측에서는 7월부터 터키의 EU 가입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,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브렉시트 결정 하루 전 터키도 EU 가입 절차의 지속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발표

### 3 전망과 시사점

#### ☒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인한 터키의 대외 재정 건전성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.

-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화, 유로화 유출이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터키 리라화 또한 약세에 따른 터키의 대외건전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  - 특히, 터키 리라화는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에 늘 취약한 면모를 보여 왔으며, 미 금리인상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브라질 헤알화, 러시아 루블화 등과 함께 취약한 신흥국 통화의 성격을 보여 왔음.
  -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터키의 대 영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 수도 있음. 특히 EU에 대한 수출 의존성이 높은 터키로서는 EU 수출도 감소하여 터키의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.

#### ☒ 다만, 단기적으로는 터키의 대 영국수출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자체전망, 그러나 EU와의 향후 협상 및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엿볼 수 있음.

- 터키 관세무역부는 6.26일자 보도를 통해 수출에 중요한 요인은 경쟁력과 품질 등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터키의 대 영국수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임.
  - 대신 EU에 대해서는 “EU가 터키에 대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성실한 태도(a sincere approach)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.”는 식으로 기대감을 나타냄.
  - 터키의 증권 애널리스트 또한 영국의 무역과 투자가 점차 감소하면서 불경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, “영국에 진출한 EU 기업들이 터키 등을 후보지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” 이라는 견해도 있음.

#### ☒ 터키의 향후 과제는 지금의 불확실성을 영국과 EU를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며, 이에 따라 터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음.

- 영국의 EU탈퇴 결정이 터키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EU와의 교역 및 금융의 불안정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임. 향후 영국의 탈퇴 과정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듯.
  - 터키는 EU의 유일한 관세동맹국 지위로서, 영국의 EU 탈퇴가 마무리 되는 2년 동안 이에 관련된 대비책 마련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.
  - 최근 몇 년간 유럽경기가 둔화된 시점에서 터키는 유럽지역 판매여건 불안, 러시아 전투기 격추사건 이후의 지속적인 긴장관계, 여전히 불안한 신흥국 통화 등 삼중고를 겪을 수도 있음.

- 한편, 영국이라는 거대한 축이 EU에서 빠져나옴으로서 상대적으로 터키가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영국의 대항마로 서서히 부각할 가능성도 높음.
  - 그간 터키는 지속적인 EU 가입시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중심의 서유럽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대해 늘 견제하는 모습을 보임.
  - 그러나 EU와의 관계가 점차 개선될 경우 터키로서도 EU회원 가입 목표는 유지될 것이며, 향후 협상에서도 EU로의 여행 비자면제 건은 중점 협의될 것으로 보임. **EMERiCs**

 출처

Reuters, 터키경제부